

사진기자의 땅짓

소 달구지의 추억, 이젠 '소 리어카'



정말 오랫동안 보는 소 달구지이네요. 저 멀리 고 흥군 봉래면 시골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습니 다. 아련한 어릴적 추억을 곱씹을 수 있었습니다. 물건 싣고 마을사람들 싣고 장터까지 오고갔던 소달구지, 30년전만해도 시골에서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소달구지 달경대던 길' '달구지' 라는 노래까지 있었죠.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달구지에 나뭇가지들을 힘들게 싣고 가시더군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 변형 달구지였습니다. 몇마디 나왔습니다. 소 달구지 타고 읍내 장터로 나가봤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버스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더군요. 봉문서답, 못 알아 들 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리어카 소달구지가 지나가는 시골길, 보기만해도 여유로워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풍경들이죠. 오늘은 랜지 우리결에서 사라진 것들이 그림입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뉴스퀴즈 53·54회 권병주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53·54회 뉴스 퀴즈 추정 결과, 권병주씨가 1 등에 뽑혔습니다. 권씨는 12일 광주일보 편집국 에서 열린 상품 추첨사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53·54회 뉴스 퀴즈에는 업서와 편지로 304명 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 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 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김재남 경사가 임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권병주·장흥군 장흥읍 2등 ▲강중구·나주시 송월동 <53·54회 정답> 53회 - ① 여수, 54회 - ① 토비 도슨

뉴스퀴즈

55.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새 국무총리로 전 경 제부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에 이 어 통상교섭본부장·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관료 출신으로, 국회 인준을 거 쳐 총리에 취임하면 지난 1983년 옛 상공부 출신 인 진의중 총리 이후 24년만에 경제 관료 출신 첫 총리로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한덕수 ② 문재인 ③ 염상국 ④ 한명숙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 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가족 전시장에서 생긴 일

어느 부부가 가족 전시장에 갔다. 첫 황소의 안내문에는 '지난해 고미 50번'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일년에 50번을 했어요. 당신도 배워요!" 라고 했다. 다음 황소는 '지난해 65회 고미'로 적혀 있었다.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한달에 다섯번도 더 되네요. 당신도 배 워야 해요"라고 했다. 마지막 황소에는 '지난 해 365번 고미'라고 적혀 있었다. 여자는 입이 딱 벌어지며 "어머!! 하루 한번이네요. 당신은 정 말 배워야 해요"라며 남편에게 또 다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자 아내의 말만 듣고 있던 남편이 은근히 화를내며 아내에 게 말하였다. "어디! 그 황소 365일을 똑 같은 암소랑 하는지 가서 물어봐"

무서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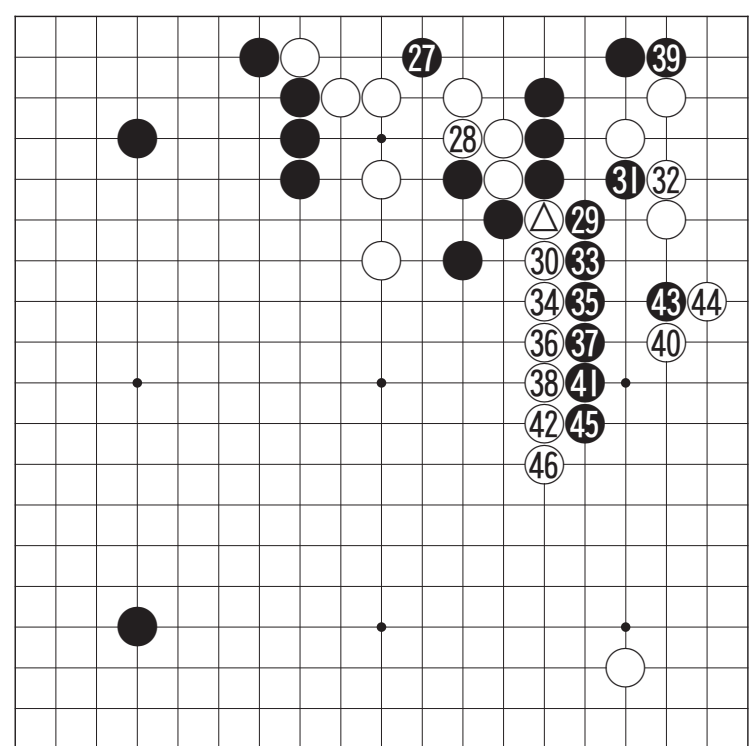
45층짜리 아파트의 꼭대기 층에 사는 부부가 있었다. 이 부부는 맞벌이 부부인데 잉고부부라 꼭 퇴근시간을 맞추어 함께 집에 왔다. 그런데 하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부부는 하는 수 없이 걸어서 올라갔다. 하지만 45층까지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했다. 그래서 지루함을 잊고 재미있게 걸어올라 가기 위해서 번갈아 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처녀귀신, 몽달귀신 등 갖가지 귀신들이 다 나왔고, 드디어 44층까지 왔다. 이번에는 아내가 이야기를 할 차례. 아내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기절해버렸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보, 나 수위실에서 열쇠 안 찾아왔어"

1만원과 50만원의 차이

한 시골 남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문제가 생겨서 왔는데요? 제 물건이 빨졌습니다." 의사는 남자를 눈히고 진찰을 하고 잠시 무언가를 하더니 말했다. "됐습니다. 진료비는 만원입니다." 남자는 저렴한 가격에 놀라서 돌아가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 다. "그래? 나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가봐야 하겠네." 친구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 물건이 파래요." 의사는 남자를 눈히고 진찰을 하더니 말했다. "수술을 해야겠네요. 수술비는 50만원입니다." "뭐예요? 친구는 만원이라던데?" 그러자 의사는 빙글이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분은 립스틱이 묻었던 거구요, 맥은 정맥이 튀어나온 병 이에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3일(음 1월 24일 丙午)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of March 13th. Each row includes the sign name, a brief prediction, and a '행운의 숫자' (lucky number).



제1회 광주시 교육청 교직원부 결승전 흑 39, 방향착오 3보(27~46) 백 김상표 4단 <윤양중 교사> 흑 정갑면 4단 <진흥고 교사> 김상표 4 단이 다짜고 짜 백 ㉔로 끊어간 장면 이다. 두대 국자가 초반 부터 포석도 생략한 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육박전을 전개하고 있다. 싸움은 정갑면 4단이 먼저 걸었 으나 김상표 4단도 지지않고 역습하 여 오히려 흑이 수세에 물리고 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실감 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되면 흑 29로 나갈 수밖에 없고 35까지는 외길수순이다. 다음 정 4단은 37로 한번 더 밀고나서 39로 귀를 밀고들어 갔는데 이것이 방향착 오였다. 흑 37로는 '참고도'의 흑 1작 을 두고 백 2 때 3으로 우변에 발려야 했다. 이랬으면 중앙 흑을 움직이는 수가 남아 흑이 충분한 형세였다. 백이 40으로 발린 수가 컸다. 이 수 로 인해 흑 45까지 밀어줄 수밖에 없 어서 중앙의 백 세력이 한없이 부풀 고 있다. 흑 43도 성공한 교환으로 손 해수, 이 때문에 흑의 다음 착점이 마 땅치 않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F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이민진 5단, 정관장배 2연승 이민진 5단이 12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5회 정관장배 세계 여자바둑 최 강전 11국에서 중국의 리춘화 5단을 325수 끝에 흑 1집 반으로 꺾고 2연승 을 올렸다. 이민진 5단은 중반 바둑이 불리한 상 황에서 투혼을 발휘했다. 이 5단은 우 세를 의식해 서둘러 판을 마무리 하려 는 리춘화 5단을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역전승을 일궈냈다. 이민진은 13일 일본 기사를 상대로 3 연승에 나선다. 이 5단이 5연승을 거둘 경우 한국은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한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초 읽기 40초 1회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smiling couple. Text includes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타없이!!', 'www.cafe.daum.net/sajoo114', and '☎11-632-6121'.

A large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ach column has a title, a sample sentence, and a list of vocabulary words with their Korean, English, and Japanese/Chinese equivalents. The columns are: 1. '굿모닝 잉글리쉬 <859>' (She looked like she was about to cry), 2. '오하오우 니혼고 <859>' (あなたとそっくりだわ), 3. '니하오 쑹구위 <50>' (你买了哪些特产), 4. '한자 이야기 <477>' (風水 (풍수)).